

# 구절초 꽃밭에서 가을 산책



구절초 꽃축제가 열리는 전북 제1호 지방정원 정음구절초공원.

(정음시 제공)

여름 장마와 가뭄, 폭염 등 혹독한 시련을 견뎌낸 구절초가 어김없이 정음 산내면 구절초지방정원에 꽃을 피웠다.

정음시는 다음달 3일부터 13일까지 정음 산내면 정음구절초공원일대에서 '제17회 정음 구절초 꽃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축제의 주무대인 구절초지방정원은 2006년 조성된 이래 매년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대표적인 가을 꽃여행의 명소다.

구절초가 만개한 숲을 배경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원 체험 프로그램이다.

'정원 스탬프 투어', '꽃 열차', '구절초 깜짝 사진사', '꽃망 정원 명', '나무놀이 감상체험' 등 자연과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풍성하

정음시, 10월3일~13일

구절초공원일대에서 꽃축제

스탬프 투어·꽃열차·콘서트 등

가을 감성+즐거거리+먹거리 풍성

게 마련돼 있다.

구절초가 가진 건강과 치유, 심리적 위로라는 콘셉트에 맞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 신청 가능한 '구절초 사진 공모전'과 전문 DJ가 진행하는 사연과 음악이 함께하는 '꽃밭 라디오', '구절초 기념사진 무료인화' 등 서정적인 감성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준비돼 있다.

개막식은 6일 오후 5시, 개그맨 김재욱(풍)의

유쾌한 진행과 함께 김다현, 박창근, 김용림, 박강성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또 12일 오후 4시에는 개그맨 김영철이 함께하는 '명사 초청 강연'이 꽃밭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이 외에도 농산물품평회를 통해 엄선된 구절초두부김치, 산채비빔밥, 수수부꾸미, 다슬기칼국수, 정음한우 등 지역의 특색있는 먹거리들이 기다리고 있다. 시에서는 참가자들의 편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먹거리를 판매하며 축제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이학수 정음시장은 "구절초 꽃축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축제에서도 구절초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정음의 맛, 편리한 교통,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 정음 국도1호선 용호교차로 진출입로 10월 2일 개통



정음시 국도 1호선 용호교차로 하행(광주 방향) 진출입로가 다음달 2일 정식 개통한다.

이번 도로개통은 국도1호선에서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출입로가 없어 주민과 탐방객들이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년여간 총 35억원을 투입해 완공했다.

도로 개통으로 정음 시내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돼 지역 주민들과 탐방객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김제-전주를 오가는 교통편의 제공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과 국도 접근 시간이 단축돼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도로 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 고창군, 토지분쟁 해결 앞장

### 지적재조사 우수기관 선정...2013년부터 7733필지 재조사

고창군이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및 국토교통업무발전'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복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다.

국토부의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 선정은 사업추진 실적, 공정률, 난이도, 정책기여도, 우수사례 등 평가항목 점수로 결정된다.

고창군은 사업지구 조정금에 대해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지구 착수 후 적극적인 토지소유자 경제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적재조사 발전에 도움을 주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2013년 공음 석교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5개 지구 7733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해 사업대상 6508필지의 84%를 완료했다.

올해도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5개 사업지구 1225필지에 대하여 추진 중이다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고창 '청년농 스마트팜단지' 만든다

### 165억 투입 내년말 준공...스마트형·연동형·단동형 온실



##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

# 농업의 첫걸음, 고창형 스마트팜

2024. 9. 26. (목) 13:30 성송면 판정리 190일원

심덕섭(왼쪽 일곱번째) 고창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6일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일원 부지에서 열린 '고창군 스마트팜단지 조성 기공식'에서 시삽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지역 청년농업인의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한다.

총 165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4만9775㎡ 부지에 지원센터와 2만800㎡ 규모의 스마트형·연동형·단동형 온실을 조성한다.

순차적으로 내년 2월, 3개동의 온실이 완공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 신청이 진행된다. 내년 말 전체적인 준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은 스마트팜 청년 보육체계와 온실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청년의 유입과 성장·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선도 농가들이 스마트팜 운용과 작물 재배기술을 전수하고 판로 개척도 지원해 기존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미생물 활용 교육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남원시, 농업인 대상...농약 사용 최소화로 토양 개선·약취 해소 등

남원시농업기술센터가 매일 첫째주 수요일 여는 미생물 활용 교육이 농업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농업 유용 미생물이란 화학비료, 합성농약 등 합성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작물생육 환경을 최적으로 조성해 작물을 재배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배양한 미생물이다.

BM 활성수는 미생물, 광물질, 물의 상호 공생 관계를 회복시켜 유기물을 분해해 만든 물질로서 남원시에서는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클로렐라, BT, 방선균 7종과 BM 활성수를 생산

하고 연 700톤 이상을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생물 공급은 농업기술센터(이백면 소재)에서 월요일 오후 1시~4시 30분, 고령지 중심인 농기계 임대사업소(인원면 소재)에서 목요일 오후 1시~4시에 공급한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유용 미생물은 작물과 축산에 효과적이고 단기 효과보다는 지속적으로 오래 사용시 효과를 볼 수 있고 시설하우스 토양 장애 개선과 축분 약취에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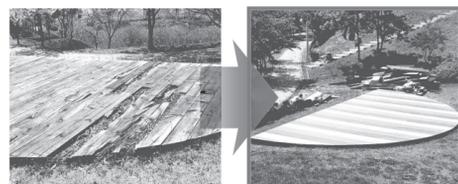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